

창간 25주년 기념

하반기 돈가는 예년과 다른 경향 보일 듯

- 하반기 큰 폭 돈가하락과 하락세 장기화 나타나지 않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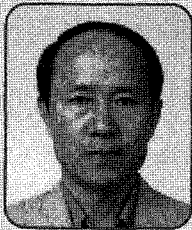
1. 돼지 사육동향 및 전망

가. 사육동향

경제 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육류 수요증가로 돼지고기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수출지원 양돈정책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전업화, 규모화가 진행되어 오던 국내 양돈산업은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일 수출 중단 이후에도 사육두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왔다.

1999년말의 7,864천두가 2000년말에는 8,214천두, 2001년에는 8,720천두 2002년도에는 8,974천두에서 2003년도에는 9,231천두로 증가세가 이어져 왔으나 2004년도 3월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유행성 설사병(PED)과, 이 유후전신성소모성증후군(PMWS)에 따른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며 총 사육두수가 9,006천두로 전년동기 대비 0.2%, 전분기대비 2.5%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향후 사육두수 변화에 기준치가 될 모돈수는 전분기 대비 7.8%, 전년동기 대비 8.7%가 감소되어 전년도의 양돈 장기불황 여파와 질병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돼지 질병 영향과 이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소규모 농가 위주의 폐업증가로 사육호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999년도의 총 사육호수 24,400여호가 2000년대에는 23,840여호로, 2001년에는 19,530여호, 2002년에는 17,430여호, 2003년에는 15,240여호로 줄었다가 2004년 12월에는 13,940여호로 크게 줄었고, 2003년 12월의 1천두 미만 사육농가 수는 1999년 대비 44.8%가 감소한 반면 2003년 12월의 1천두 이상 사육



정 규 성 소장
축산물류통연연구소

하반기의 돼지거래가격은 예년의 돈가 사이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나 돼지거래가격 형성요인들을 고려할 때 전년도와 같은 상반기의 단기 반등 이후 하반기 이후 큰 폭 하락과 하락세 장기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듯하다.

돼지거래가격은 전년도보다 상당폭 높은 선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수는 2,920호로 1999년 대비 36.1%가 증가했으며, 2003년말의 1천두 미만 농가들의 사육두수는 253만두로 1999년 대비 26.1%가 감소한 반면 2003년말의 1천두 이상 농가들의 사육두수는 671만두로 1999년 대비 36.1%가 증가하여, 1999년도에는 8.8%의 전업농가가 전체 사육두수의 56.5%를 점유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19.2%의 전업농가가 전체 사육두수의 72.6%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당 사육두수 추이도 1999년에 321.7두가 2000년에는 344.5두로, 2001년에는 446.5두로, 2002년에는 514.7두, 2003년에는 605.6두에서 2004년 3월에는 646.1두로 증가하여 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 사육전망

2004년에는 3월의 사육두수 감소와 더불어 1~4월중의 배

합사료 생산량도 178만7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되었으며, 이 기간중의 모돈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37만6천여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하였고, 육성용은 90만1천톤으로 1.0% 감소하였으며, 꺾먹이용은 전년동기 대비 11.3%나 감소한 50만3천톤이었다. 이러한 사료생산량 추이를 감안할 때 연초부터 강세를 지속해온 돈가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BSE발생과 조류독감 영향에 따른 대체 수요증가와 출하물량 부족세가 중복 작용된 결과로 판단케 하고 있어 하반기 이후의 돼지 사육두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에 100kg 성돈의 전국 평균 거래가격이 25~26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비육박피돈의 전국 평균 경락가격이 4,000원대를 넘나드는 강세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질병 피해지속 우려, 향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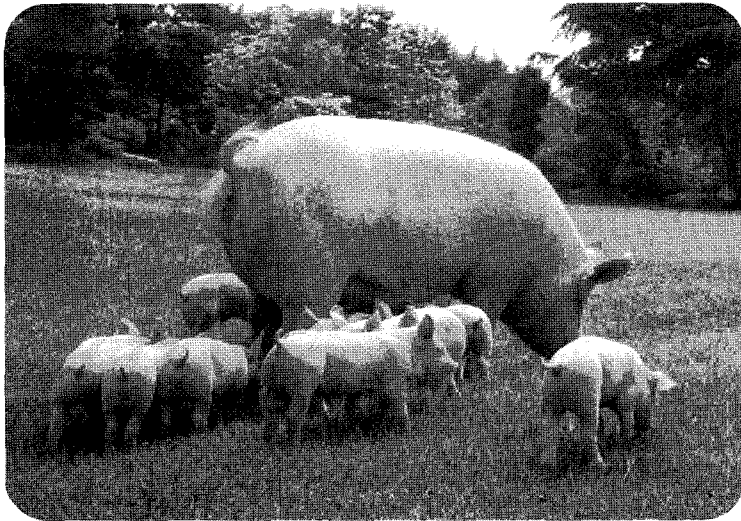
축산업등록제 시행, 오피수 처리강화 등의 영향으로 사육두수는 2004년 연초부터 지속되어온 돈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에는 920여만두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12월에도 전년수준과 비슷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2.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가. 2004년 돼지고기 수급전망

- 연초 2004년 국내 생산량은 795천여톤으로 2003년 784천톤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올해 1~4월의 도축두수는 496만여두로 작년동기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의 도축두수가 전년동기보다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다가 2, 3월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4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여, 전년



도의 질병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출하물량 감소로 반영되고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추이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듯 하여 연초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추정은 1.4% 증가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케 하고 있어 하반기에 예상되는 출하물량 증가폭이 주목되고 있다. 2004년 3월 가축통계 자료를 참조하여 출하물량을 추정해 보면 5~6월 출하물량은 전년동기보다 0.9% 감소될 것이 예상되나, 7~8월 출하예상 물량은 전년동기보다 1.8%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수입쇠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질병관련 보도 이후 돼지고기로의 소비대체가 커지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돼지거래가격은 출하물량 부족세가 중복 작용되며 상승폭

이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돈가 강세지속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입물량도 연초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케 하고 있다.

올 1~5월중 돼지고기 수입 물량(검역기준)은 4만3천470여톤으로 전년동기의 2만7천270여톤 대비 거의 60%나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초의 연중 수입물량 추정치인 7만3천톤보다 상당폭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나. 하반기 돼지거래가격 전망

- 작년말과 연초에 발생한 타축종의 질병 발생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타축종 질병에 따른 소비기피 심리의 둔화속도가 느리

게 진행됨은 물론 불황기에 강해지는 가격경쟁력 영향도 돼지거래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됨에 따라, 돼지거래가격은 크게 상승세를 보여 4월의 성돈 100kg 평균거래가격은 23만4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4% 상승했고, 5월~6월에는 25~26만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돼지거래가격의 강세기조는 향후 국내 돼지출하물량 추이, 수입돼지고기 증가 정도, 시중 경기흐름 등의 주변여건 변화가 복합 작용되며, 하반기 돈가 흐름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케 하고 있다.

- 국내산 돼지 수급여건을 감안하면 9월까지의 총 출하두수가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4분기와 3/4분기의 돼지거래가격은 작년동기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의 돈가흐름에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시중 경기 동향과 수입돼지고기 추이가 하반기 돈가형성에 큰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속적이고 큰 폭의 돼지거래가격 상승으로 부분육가공, 유통업소들의 수지경영 여건

특이한 현상 97.17.92

향후 양돈 산업을 “질병, 환경과의 전쟁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 바 질병방역과 친환경차원의 여건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여 소비자들을 의식한 돼지고기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악화로 작업물량 감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육가공 제품 업소들도 원료육 구입단가 상승,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돼지수요의 큰 축중 하나인 외식업소, 급식업소에도 나타나고 있어 불경기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세 심화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수입 돼지고기 대체가 증가폭을 키우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향후 육류시장 흐름에 최대 변수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국제교역 여건변화와 이로 인한 수입쇠고기 시장을 비롯한 쇠고기 소비추이 역시 하반기 돈가 형성에 큰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OIE(국제수의사무국)에서 검토된 내용을 고려하면 올 연말 내에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출재개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지 때문이다.

- 하반기의 돼지거래가격은 예년의 돈가 사이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나 돼지 거래가격 형성요인들을 고려할 때 전년도와 같은 상반기의 단기 반등 이후 하반기 이후 큰 폭 하락과 하락세 장기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듯하다.

돈가 형성의 가장 큰 요인인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추이도 시중경기를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의 돈가 하락 불안심리, 사료가격 인상부담, 등록제 실시, 분뇨처리 기준 강화 등 사육두수 증가 억제 요인이 강하게 작용되며, 하반기중 출하물량 증가폭도 예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전반적인 소비위축심리 가운데서도 타육류보다 불황에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여건이 변경되더라도 연내에는 시장에서 정상화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돼지거래가격은 전년도보다 상당폭 높은 선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4분기의 생

돈 100kg기준 전국 평균가격이 작년보다 35~40% 상승한 25~26만원대를 보이고 있으나, 3/4분기인 7~9월에는 출하물량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더라도 전년동기 대비 1.1% 정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2~24만원선으로 예상되며, 10월~12월에는 연중 최대 소비감소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19~23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단순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급 이외에도 상당수의 주변 변화요인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할 것으로도 예상되어 상당폭의 오차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돼지 질병과의 상관관계는 가장 큰 변수중의 하나로 향후 양돈 산업을 “질병, 환경과의 전쟁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 바 질병방역과 친환경차원의 여건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여 소비자들을 의식한 돼지고기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돈**